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2년 12월호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mssamok.cathms.kr>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의 예화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1절을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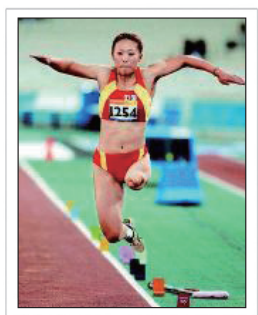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주님,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제가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

삶의 이야기

진행자 사진을 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기도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2장 42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 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성경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없을 때는

- 2012년 한 해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어느덧 2012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12월은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대림시기이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유종의 미를 생각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지나간 것에 감사하며 남은 시간을 복음에 나오는 충실한 종처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 11일부터 ‘신앙의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해는 온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주님을 향하여 새롭게 돌아서라는

초대입니다. 교구장 주교님께서서는 신앙의 해 개막미사 때 다음과 같은 당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사실은 사랑의 위기입니다. 믿음은 사랑의 행위이고 믿는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고, 믿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을 전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 줍니다. 우리 마음을 희망으로 채우고 우리가 생명을 주는 증언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믿음은 듣는 이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 그들이 당신 말씀을 따르고 당신 제자가 되라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게 합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한 대로, 믿는 이들은 “믿음을 통하여 스스로 감해집니다”(「믿음의 문」, 7항 참조).

이처럼 은총의 선물로 받은 신앙에 우리 모두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을 더욱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사도 1,8-11; 루카 24,35-48 참조).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주 반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먼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증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복음을 삶 안으로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노력할 때 그분에 대한 신앙은 올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처럼’ 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분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1번 ‘구세주 빨리 오사’ 2절을 부릅시다.

궁금
했어요가톨릭 신자들에게
왜 성사가 중요한가?

영혼과 육신의 치유는 언제나 그리스도 교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던 동안에 앓는 이들을 고쳐 주고 죄인들을 보살피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다.

성사들은 가톨릭 신자들의 특별한 요청에 따라,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 주는 확실한 보증이다. 성사들은 표징들과 상징들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힘을 얻어 강해지고, 음식을 통해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죄를 용서 받고, 병에서 치유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투신하고, 성사적 의식들을 거행한다. 성사들을 통해 그렇게 한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끊임없는 현존을 보여 주는 표징들을 통해 우리 믿는 이들과 함께 계신다. 성사들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활기 넘치는 친교를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다. 성사들은 우리에게 특별히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며, 모든 시간을 우리가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사랑으로 함께 하는 소공동체

- 남지선교본당 제5소공동체 -

남지선교본당 제5소공동체 박명숙 루치아

창녕군에 위치해 있는 남지선교본당은 남지읍에 있는 남지성당과 낙동강변 유채꽃 축제와 부곡온천으로 유명한 부곡성당 그리고 영산쇠머리 대기 축제가 열리는 영산성당이 한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철민 안토니오 신부님께서 세 곳을 사목하고 계시지요. 구역으로 나누어진 곳도 있지만 반촌이라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교우들끼리 소공동체 모임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 제5소공동체는 본당 전 사목회장과 올봄에 부산에서 사업을 하시다 오신 부부, 직장관계로 서울에서 오시게 된 부부, 창원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신 부부, 또 좋은 공기 따라 창원에서 이사 와 유채꽃밭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저희 부부 그리고 반송성당에서 오신 자매님 이렇게 열 분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걸음마도 서툰 그런 소공동체랍니다.

그래도 신심만큼은 두터운 분들이라 열의는 어느 곳 못지않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시다 교장직에서 은퇴하신 마티아 전 사목회장님은 깊은 지식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니다. 교우들 이름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불러주실 때는 온화하신 성품에 절로 빠지게 되지요. 장마면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흰 머리의 비오 형제님은 집안 텃밭에 채소를 길러 미사 있는 날이면 가지고 오셔서 신자 분들과 함께 나누십니다. 도회지에서 이사를 오셨지만 이웃과도 친하게 지내시니 주님을 따르는 이의 본보기가 되어 주십니다. 비아 자매님은 신자 분들을 향심기도회로 잘 인도하여 한 분

한 분 잘 챙겨주시는 사랑 많으신 분이십니다. 프란치스코 형제님은 회사에 출근하시기 전 늘 성당에 들러 성체조배를 하시고, 조배가 끝나면 교우들이 쉬는 등나무 아래 쉼터를 깨끗이 치우시고 출근하시지요. 희생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시랍니다. 프란치스코 형제님의 짝지 미카엘라 자매님 또한 남의 힘든 일을 조금도 보지 못하고 반드시 도와 드려야 마음이 편한 분이시지요. 시설하우스로 고추농사를 많이 하는 곳인지라 수확으로 정신없이 바쁠 때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봉사하시는 모습에서 지칠 줄 모르는 부지런함과 선한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직장 관계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시게 된 점잖으신 바오로 형제님과 루피나 자매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데레사 자매님은 세례를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외썩교우지만 많은 사람과 원만히 소통하는 활달한 성격인 만큼 앞으로 전교도 잘하리라 믿습니다. 저희 남편 루치오도 좋은 공기를 따라 이곳에 왔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사는 공기가 좋아 소공동체 반원들이 모이는 일에 힘쓰답니다.

“자네의 시작은 보잘 것 없지만 자네의 앞날은 크게 번창할 것이네.” (욥기 8,7)라는 말씀처럼 우리들의 시작은 비록 미약하고 보잘 것 없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제5소공동체의 앞날은 크게 번창하리라 믿습니다. 남지선 교본당 제5소공동체 파이팅!



〈남지선교본당 제5소공동체 반원들〉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